

광주·전남 공공 배달앱 홍보·인센티브 늘려야

광주 '위메프오' '뽕겨요'
합쳐도 '배민' 절반 못 미쳐
'리본택시' 사실상 운영 중단
전남 '떡깨비'도 갈 길 멀어
지자체 적극적인 지원 시급

#"대부분의 주문은 '배달의민족' 등 대형 민간 앱으로 접수됩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공공 배달 앱 '위메프오'나 '뽕겨요'는 주문량이 미미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공공 앱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홍보나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식당업·이민우(광주시 북구·42)씨)

#"택시는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대형 플랫폼 한 곳이 요금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공공 앱이 3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경쟁해야만, 장기적으로 시민 부담도 줄어든 텐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광주 법인택시 업체 대표)

광주·전남지역이 대형 민간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점령당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이 공공 배달 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해 온 대형 앱 업체들의 경쟁력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후발주자인 공공 배달 앱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상상을 뛰어넘는 가격 홍보와 할인 혜택, 인센티브 등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부터 사로잡아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지역 배달 앱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0.54%, '요기요' 15.42%, '쿠팡이츠' 16.70%, '위메프오' 12.41%, '뽕겨요' 5% 순이다. 점유율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이다. 광주시 공공 배달 앱인 '위메프오'와 '뽕겨요'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남도의 경우도 공공 배달 앱인 '떡깨비'가 이달 기준 출시 2년 만에 누적 주문 85만건, 누적 매출액 209억원을 돌파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출시 10개월 차였던 지난해 4월 초 기준 누적 매출액이 50억원이었던 '떡깨비'는 전남도의 '착한 소비 동참 캠페인'과 다양한 할인 이벤트 등으로 15개월 만에 3배 넘는 추가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지만, 홍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대형 민간 플랫폼 앱과의 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택시업계는 도우려는 호출 공공 앱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역 택시 업계 등 따르면 광주지역 개인·법인 택시 8000여대 대부분은 민간 대표 호출 앱인 '카카오 택시'에 가입돼 있는 반면 광주형 호출 앱인 '리본택시'는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리본택시는 2020년 출시 당시만 해도 법인 택시 2000여대, 개인택시 2400여대 등 절반이 넘는 택시들이 가입했었지만, 전국구의 '카카오 택시' 벽을 넘지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선(先) 호출을 받을 수 있는 가맹 사업 '카카오 블루'는 총매출의 3.96%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도, 호출을 빠르게 받으려는 기사들이 몰려들면서 가입 택시만 2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카오 블루는 기본 요금부터 비싸게 책정돼, 결국 시민들이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기사들의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한 시민은 "추가 요금이 없는 카카오 택시는 타고 싶어도 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고 블루를 호출해야만 택시를 탈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간 배달·호출 앱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 앱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공공 앱 중 그나마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구시는 저렴한 수수료와 적극적인 홍보 등을 앞세워 다양한 공공 앱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 공공 앱인 '대구루'는 배달과 호출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까지 추가 운영해 인기가 높다. 공공 배달 앱으로 시작한 대구루는 택시 호출, 대리운전 호출, 전통시장 장보기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늘리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오상욱이 태극기를 들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상욱 펜싱 금... 오예진·김예지 공기권총 금·은 명증

2024 파리올림픽 개막과 함께 한국대표팀의 메달 소식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2·18면> 27일(이하 한국시간) 올림픽 첫 메달 소식을 전했던 사격에서는 28일 금메달과 은메달이 동시에 쏟아졌다. 수영에서는 12년 만의 메달이 나왔고, 펜싱에서는 한국 사상 첫 남자 사브르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유례없는 선상 개최식으로 막을 연 이번 대회에서 한국 사격은 27일 첫 메달을 수확했다. 박하준(KT)과 금지현(경기도청)은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에서 중국의 성리하오·황위팅에 세트 점수 12-16으로 패했다.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두

선수 이번 대회 한국의 첫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어 수영에서 동메달이 나왔다.

예선에서 7위에 그치면서 1번 레인에서 결승전 질주를 한 김우민은 세 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2012년 런던대회 박태환의 은메달 이후 12년 만에 수영 종목 메달을 선사했다.

대회 첫날 메달 레이스의 마지막은 오상욱이 금빛으로 장식했다. 오상욱은 28일 새벽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서 튀니지의 페레스 페르자니를 상대로 15-11승을 거두면서 올림픽 정상에 올랐다.

한국의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된 오상욱은 자신의 국제대회 개인전 '그랜드슬램'도 이뤘다.

그리고 28일 저녁 다시 금빛 총성이 울려 퍼졌다.

다.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서 오예진(IBK 사격단)과 김예지(임실군청)가 금메달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였다. 오예진이 243.2를 쏘면서 올림픽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김예지가 241.3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9일에는 김우진(정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으로 구성된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3회 연속 우승을 거뒀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인 여자 유도 간판 허미미(경북체육회)는 여자 57kg급 금빛 메치기에 도전한다.

탁구 간판 신유빈(대한항공)은 후주의 멜리사 테퍼를 상대로 여자 단식 64강전에 나선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민주당 대표 경선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 90.4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8일 총남과 총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대승을 거뒀다. 이날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충북 지역순회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8274표(88.91%)를 얻었다. 이어 김두관 893표(9.60%), 김지수 139표

(1.49%)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3863표

2522표(13.55%), 김병주 2432표(13.07%), 한준호 2405표(12.92%), 이연주 2311표(12.42%), 민형배 961표(5.16%), 강선우 945표

(5.08%) 순이었다.

이로써 이 후보는 누적 득표에서도 90.41%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김두관 후보는 8.36%, 김지수 후보는 1.23%를 기록하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 누적 투표에서는 정봉주 19.03%, 김민석 17.16%, 김병주 14.31%, 전현희 13.20%, 이연주 12.15%, 한준호 12.06%, 강선우 6.10%, 민형배 5.99%를 기록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이번 여행은 가까운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편리한 무안에서 떠나자!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3개국 8개 노선!

- 베트남**
 - 나트랑 화·토 비엳항공
 - 다낭 수·토 비엳항공 4일주기 뽕부항공
 - 푸꾸옥 4일주기 비엳항공
 - 달랏 4일주기 비엳항공
- 중국**
 - 장가계 화·금 사천항공 수목토일 제주항공
 - 연길 화·토 제주항공
 - 오르도스 화·금 중국연합항공
- 몽골**
 - 울란바토르 수·토 진에어 수·일 훈부항공

국내선 1개 노선 · 주 6회 운항!

제주도도 무안에서 편안하게!

- 무안-제주**
 - 수 07:40 제주항공
 - 월·금·일 08:40 제주항공
 - 목·일 08:15 진에어
- 제주-무안**
 - 화·토 07:00 제주항공
 - 수·일 18:55 제주항공
 - 수·토 18:25 진에어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라남도 관광재단 Jeollanam-do Tourism Organization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HAMPyeong COUNTY

영광군

1004 신안군 신안시

KAC 한국공항공사